

원규(院規)

연대 및 작자 미상(未詳)_44.0×165.0cm



옥산서원의 운영규정인 원규이다. 작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서원 건립 초기에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항에서 5항까지는 이산서원 원규를, 6항에서 12항까지는 소수서원 원규를, 13항은 이산서원 원규를, 14항에서 17항까지는 산규 조항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14항은 춘추향사 불참자에 대한 처벌 규정, 15항은 원입과 전수의 처벌 규정, 16항은 서책 불출 규정, 17항은 미관자(未冠者)의 출입불허 규정이다. 옥산서원의 원규는 기존 원규의 활용과 함께 서원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첨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옥산서원 원규는 인근에 위치한 서악서원 원규와 동일하다.

-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竝不得入院近眼 以亂道惑志
- 一. 諸生立志堅苦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爲非學 如有性行乖常 非笑禮法 侮慢聖賢 詭譎叛逆 醜言辱親 敗壞不率者 院中共議擯之
- 一. 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思廢業
- 一. 無故無告 切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儆 相觀而善
- 一. 泮宮明倫堂 書揭伊川先生四勿箴 晦菴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岡夙興夜寐箴 此憲甚好 院中亦宜以此揭諸壁上 以相規警
- 一.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夫不謹則祀不享 不禮則賢不至 宇不修則必壞 廩不備則必匱 書不點則必散 五者不可以廢一也 斯文統檢 有司監掌

- 一. 別擇業文信慎者一人 爲院長 又擇一人 爲貳 共主院事
- 一. 凡入院之士 司馬則如入大學 其次初試入格 雖非初試入格 其一心向學有操行而願入者 有司稟于斯文許入 夫開院固欲迎賢 若濫入則不肖者間之 非徒耗庫 將有損書冊什物 愚者至而賢者必不肯來 亦荒廢廟院字之一漸也 其擇尤不可不謹也
- 一. 別置入院錄 凡入院之士 必自錄姓名 且記其來寓年月 夫題名者 豈偶然哉 後來者必披案歷指曰 某也學而爲己 某也學而爲人 某也生而有愧 某也沒而無作 其窮達雖殊 而賢愚亦遠 可不勉乎 可不懼乎
- 一. 邑宰子弟 不得留滯貽弊 不得擅便書冊
- 一. 禁射候遊宴
- 一. 復守直之家 人不得役 官不得奪
- 一. 凡院所屬 非公事 切勿私使
- 一. 凡院生春秋享祀時 無故下參者 斯文重罰
- 一. 凡主院事者 或當任不謹 或典守不廉 斯文共議黜之
- 一. 書院冊及器用 切勿出院門
- 凡未冠者 切勿許入齋舍 以致毀瓦畫墁點污書冊事

1. 제생(諸生)들은 독서하는 데 사서(四書)·오경(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문호(門戶)로 삼으며, 국가의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서 온갖 선(善)이 본래 내게 갖추어진 것을 알고 옛 도(道)가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믿어서, 모두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얻어 밝게 체득하여 적용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여러 사서(史書)와 자서(字書)와 문장(文章)과 과거 공부 또한 아니할 수 없고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내외(內外)·본말(本末)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 나머지 사특하고 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모두 원내(院內)에 들어 눈에 가까이 해서 도(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1. 제생들 가운데 뜻을 굳게 세우고 나아가는 길을 정직하게 하며, 사업은 원대한 것으로 스스로 기약하고 형실은 도의를 귀추(歸趨)로 삼는 자는 잘 배우는 것이고, 마음가짐이 비천하고 취사(取捨)가 현혹되며, 지식은 저속하고 비루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뜻과 희망이 오로지 이익(利慾)에만 있는 자는 잘못 배우는 것이다. 만일 성품과 행실이 괴이하여 예법을 비웃고 성현을 업신여기며 정도(正道)를 위반하고 추한 말로 친한 이를 욕하며,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원중(院中)에서 함께 의논하여 쫓아내도록 한다.

1. 제생들은 항상 각자 재실에 조용히 있으면서 오로지 독서에 정진하고, 의심나고 어려운 것을 강론하는 일이 아니면 부질없이 다른 방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보내어 피차간에 생각을 거칠게 하거나 학업을 폐해서는 안 된다.

1. 까닭 없이 알리지 않고 자주 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릇 의관과 행동 거지와 언행에 대해 각기 간곡하게 권면(勸勉)하도록 힘쓰며 서로 보고 선(善)해지도록 한다.

1. 성균관의 명륜당(明倫堂)에 이천(伊川) 선생의 「사물잡(四勿箴)」과 회암(晦庵) 선생의 「백록동규(白鹿洞規)」, 10훈(十訓)과,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써서 걸었는데 이 뜻이 매우 좋다. 서원에도 또한 이것을 벽에 게시하여 서로 경계로 삼도록 해야 한다.

1. 첫째,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 둘째, 어진 이를 예우할 것. 셋째, 원우(院宇)를 잘 보수할 것. 넷째, 물자를 비축할 것. 다섯째, 서책을 점검할 것.

대개 삼가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 어진 이가 서원에 이르지 않고, 원우(院宇)를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공간을 갖추지 않으면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서책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진다. 이 다섯 가지는 그 중 하나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사문(斯文)이 통합 점검하되 유사가 감독 권장한다.

1. 별도로 학문을 하는 가문의 신실한 이 한 사람을 원장으로 가려 뽑고, 또한 사람을 가려 뽑아 부임(副任)[有司]으로 같이 서원 일을 주관한다.

1. 무릇 입원하는 선비들은 사마의 경우 태학에 들어오는 것과 같으며, 그 다음은 초시(初試) 입격자로 하고, 비록 초시 입격자는 아니라도 학문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행실이 바른(操行)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유사는 사문에 몰어 입원(入院)을 허락한다.

대개 서원을 여는 것은 어진 선비를 맞이하고자 함인데, 만약 함부로 들이면 간혹 변변치 못한 자가 섞이면 한갓 곡물만 소모될 뿐만 아니라 서책과 집물(什物)을 훼손시킬 수 있다. 어리석은 자가 들어오면 어진 이가 반드시 쉬 오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원우가 점점 황폐해질 것이니 그 가려냄을 더욱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1. 별도 입원록을 비치해두고 무릇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적게 하고 또 사는 곳과 머문 연원을 기록하게 한다.

대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나중에 서원에 오는 이가 반드시 그 명단을 짚어보고 지적하면서 아무개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했고, 아무개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을 했고, 아무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아무개는 죽어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할 것이다. 그 출세를 하고 못함은 비록 다르지만 어질과 어리석음도 또한 큰 차이가 있으리니. 아!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며 힘쓰지 않으랴.

1. 고을 수령의 자제라도 서원에 머물면서 폐를 끼쳐서는 안 되며, 서책을 마음대로 다루게 해서는 안 된다.

1. 활쏘기와 유연(遊宴)을 금한다.

1. 서원을 지키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사사로이 부릴 수 없고, 관아에서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1. 모든 서원에 속한 공사(公事)가 아니면 사사로이 부리지 못한다.
1. 모든 원생은 춘추향사 시 연고 없이 불참하면 사문(斯文)[鄕中儒林]이 중벌을 준다.
1. 무릇 서원 일을 주관하는 자[院長, 有珔]나, 맡은 소임을 삼가지 않은 자나, 예법을 지킴에 청렴하지 못한 자는 사문이 의논하여 내친다.
1. 서원 서책 및 그릇은 절대 서원 문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1. 무릇 아이들은 재사에 절대 들여보내지 말 것이며, 기와를 훼손시키고 벽에 글을 그을 것[劃墁]이고 서책을 낙서로 더럽힐 것이다.
관례를 치르지 않은 자는 재사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건물을 훼손하고 서책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번역 : 옥산서원 제공